

#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살위험성 보호요인

김희숙<sup>1</sup> · 채영선<sup>2</sup> · 배영주<sup>2</sup>

<sup>1</sup>경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 <sup>2</sup>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 The Protective Factors of Suicide Probability in Religious Male High School Students

Kim, Hee Sook<sup>1</sup> · Chae, Young Sun<sup>2</sup> · Bae, Young Joo<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up>2</sup>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tective factors that influence suicide probability in religious male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Nov. 5 to Dec. 10, 2009.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255 students selected from 2 religious male high schools in B city.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the 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ce (SPS-A), Inventory Parents Peer Attachment-Revision (IPPA-R), 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and Ego-identit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14.0 program. **Results:** The protective factors of suicide probability in religious 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identified as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 $\beta = -.46, p < .001$ ), self-identity ( $\beta = -.30, p < .001$ ), and mother attachment ( $\beta = -.21, p < .001$ ). These three factors explained 61.5% of the variance in suicide probability.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improvement in spirituality, ego-identity, and mother attachment for religious male high school students is important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suicide.

**Key words:** Suicide probability, Attachment, Identity, Spiritualit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자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으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감 및 무력감과 더불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갈망에서 시작된다. 이는 한 개인이 고통스런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방식 내지는 대처양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 200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31.0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사망원인 중 1위로서 전체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의 구성비는 29.5%로

나타났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자살은 현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청소년에게서는 특히 중요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소년 자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계획에 의한 자살보다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Jang, 2004), 발달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 저하, 자아정체감 혼란, 가정불화, 종교 및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자살 보호요인이라 개인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발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높은 자존감, 정체성 확립, 행복한 가정, 종교 및 사회

주요어: 자살위험성, 애착, 자아정체감, 영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ee 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5-420-4927 Fax: +82-55-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투고일: 2010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5일

적 지지 등을 말하며, 이는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하게 만들고, 개인의 적응방식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준다(Park, 2009). 청소년의 자살 보호요인으로는 종교적 요인(Eskin, 2003), 신체 정신적 건강상태, 영적 안녕감, 가족의 지지, 학교 환경적,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 화목도 및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교우관계 친밀도(Kim & Lee, 2009), 애착(Bostik & Everall, 2007), 영적 안녕(Kim, Kwon, & Park, 2006; Kye, 2007) 등이 있다. 최근 들어 간호학 연구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위협요인에 관한 것(Lee & Lee, 2002; Lee, Kweon, & Kim, 2007)이거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을 함께 한 연구들(Kang, Song, Jo, & Kang, 2004; Park, H. S., 2007)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관련 연구들은 위협요인을 보호요인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주요한 정신보건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위협요인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자살 보호요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지만 실제 자살은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Park, B. K., 2007). 하지만 Lee와 Lee (2002)의 인문계와 실업계의 남녀공학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 사고 점수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고, Lee 등(2007)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자살사고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또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Eskin (2003)은 종교적 요인이 자살생각을 낮춘다고 하였으며, Colucci와 Martin (2008)도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살이 남학생에게서 더 빈번한 점과 종교가 있는 학생이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올바른 삶의 의미 및 실존적인 만남의 의미와 가치 등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종교계열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보호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한 Kim과 Lee (2009)의 결과를 보면, 보호요인 중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개인 특성에서는 신체 정신적 건강상태이고, 심리적 특성에서는 영적 안녕감, 가정관련 특성에는 가족의 지지, 학교관련 특성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였고 그 이외에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 화목도 및 부모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이나 자아정체감, 교우관계 친밀도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stik과 Everall (2007)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극복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애착 관계에 대한 지각의 변화가 자살로부터 치유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잘되고 보살핌과 지지를 받을수록, 갈등, 긴장과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Bai와 Chang (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심리적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부모 자녀 관계도 큰 변화를 겪게 되나, 청소년은 여전히 부모와 가깝게 지내며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갖기 원한다. 동시에 부모보다 상호 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 친구와 선생님 등 새로운 애착대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Joo, 2007). 그러나 아직 자살위험성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대상인 부모와 친구의 애착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키는 자질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시기에 발달되는 주요 과업으로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데, 자아정체감의 혼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스트레스 또는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고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Jang, 2004).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H. S. (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자살사고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기정체감을 잘 확립하는 것은 자살위험성 감소에 미치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살위험성과 관련된 또 다른 보호요인은 영성으로 Kim 등(2006)은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이 중앙값 이상인 경우가 중앙값 이하인 경우 보다 자살위험성이 낮다고 하였고, Kye (2007)는 청소년들의 자살 위기상담 개입 시 실존적 영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영성은 삶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대처하는 심리적인 변인인 애착, 자아정체감, 영성이 자살위험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정신간호학은 지역사회영역 확대로 1차 예방사업의 목표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이 중요한 과업으로 부각됨으로써 자살예방증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계열 남자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구체적인 자살예방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관련된 보호요인들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관련된 보호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지역에 소재한 실업계와 인문계 2개의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으로, 대상자 표집은 각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인 2개 학교의 기관장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교사의 협조를 받아 연구에 참석할 것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중간크기의 effect size .15, 유의수준( $\alpha$ ) .05, 독립변수 6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1-\beta$ ) .95를 유지하도록 하고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 146명이었다(Faul, Erdfelder, Lang, & Bunchner, 2007). 본 연구에서는 총 27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15부를 제외한 255부를 최종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자살위험성

자살위험성은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Go, Kim과 Lee (2000)의 한국판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ce, SPS-A)를 Kye (2007)가 수정하여 사

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저자에게 이메일로 연구목적을 밝히고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및 자살사고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은 역 채점 처리하였다. 총 31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대부분 그렇다'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며, Kye의 연구에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2) 애착

애착은 한 개인이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부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Ok (199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저자에게 이메일로 연구 목적을 밝히고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IPPA-R은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친구 애착 각각 25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의사소통, 상호신뢰, 친애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부모 애착 .89, 또래 애착 .87, 또래 애착 .92이며 Ok의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93, 또래 애착 .92, 또래 애착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93, 또래 애착 .92, 또래 애착 .93으로 나타났다.

####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키는 자질로, 본 연구에서는 Park과 Lee (1999)가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8개 영역 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의 두 영역을 제외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한 5점 척도 48문항을, 연구 시작 전 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로 연구 목적을 밝히고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rk과 Lee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 4) 영성

영성이란 인간의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 (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Spiri-

tual Well-Being, SWBS)를 Park과 Yoo (2003)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저자에게 이메일로 연구 목적을 밝히고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이 척도는 주관적 영적 안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도구는 총 20문항의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종교적 영적 안녕 .93, 실존적 영적 안녕 .86이며, Park과 Yoo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영적 안녕 .90, 실존적 영적 안녕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영적 안녕 .80, 실존적 영적 안녕 .76이었다.

####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설문응답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문항 작성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위험성 비교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자살위험성, 자아정체성, 애착, 영적 안녕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자살위험성과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이 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독립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등으로 진단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연구 대상자의 학교계열은 인문계 147(57.6%)명, 실업계 108명(42.4%)였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147명(57.6%)으로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가족형태는 부모님 동거가 219명(85.9%), 학교성적은 중이 128명(50.2%), 경제수준도 중이 190명(74.5%)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

Table 1. Suicide Prob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pm$ SD	t or F	p	Scheffe
School types	Academic	147 (57.6)	2.36 $\pm$ 0.62	0.21	.831	
	Vocational	108 (42.4)	2.38 $\pm$ 0.49			
Religion	Yes	147 (57.6)	2.30 $\pm$ 0.53	-2.37	.018	
	No	108 (42.4)	2.47 $\pm$ 0.61			
Family type	Living with both parents	219 (85.9)	2.35 $\pm$ 0.56	1.95	.144	
	Living with mother or father	27 (10.6)	2.43 $\pm$ 0.50			
	Other	9 (3.5)	2.72 $\pm$ 0.82			
Academic record	High <sup>a</sup>	73 (28.6)	2.28 $\pm$ 0.66	7.98	<.001	c > a, b
	Middle <sup>b</sup>	128 (50.2)	2.31 $\pm$ 0.44			
	Low <sup>c</sup>	54 (21.2)	2.64 $\pm$ 0.64			
Economic level	High	28 (11.0)	2.31 $\pm$ 0.70	2.86	.059	
	Middle	190 (74.5)	2.34 $\pm$ 0.51			
	Low	37 (14.5)	2.58 $\pm$ 0.70			
Bully experience	Yes	22 (8.6)	2.86 $\pm$ 0.83	2.94	.007	
	No	233 (91.4)	2.32 $\pm$ 0.52			
Parent divorce	Yes	15 (5.9)	2.52 $\pm$ 0.74	1.01	.313	
	No	240 (94.1)	2.36 $\pm$ 0.56			
Suicide attempt	Yes	22 (8.6)	3.14 $\pm$ 0.72	5.34	<.001	
	No	233 (91.4)	2.30 $\pm$ 0.49			
Religion activity	Yes	54 (21.2)	2.32 $\pm$ 0.51	-0.66	.505	
	No	201 (78.8)	2.38 $\pm$ 0.58			



따돌림 경험이 없다가 233명(91.4%),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233명(91.4%)이었고, 종교 활동은 참석하지 않는다가 201명(78.8%)으로 참석하는 경우 보다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다( $t = -2.37, p = .018$ )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 성적은 상이나 중( $F = 7.98, p < .001$ )인 경우가 하보다, 집단따돌림 경험은 없다( $t = 2.94, p = .007$ )라고 응답한 경우, 자살시도 경험은 없다( $t = 5.34, p < .001$ )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자살위험성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들의 정도

자살위험성의 문항평점은 2.37점이었다. 자살위험성 관련 보호요인들의 문항평점은 부 애착 3.54점, 모 애착 3.68점, 친구 애착 3.50점, 종교적 영적 안녕은 2.82점, 실존적 영적 안녕 4.16점, 자아정체감 3.00점이었다(Table 2).

## 3.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위험성과 종교적 영적 안녕( $r = -.16, p < .05$ )은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 애착( $r = -.45, p < .01$ ), 모 애착( $r = -.48, p < .01$ ), 또래 애착( $r = -.47, p < .01$ ), 자아정체감( $r = -.64, p < .01$ )은 중등도의 상

관관계, 실존적 영적 안녕( $r = -.72, p < .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 4.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13-.77로 .80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오차의 자기 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013로 자기 상관이 없었고,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0-.84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188-1.665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로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ang & Kim, 2005).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호요인으로

Table 2. Scores for Variables

(N=255)

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 ± SD	Range
Suicide probability		1.23	4.68	2.37 ± 0.56	1-5
Attachment	Father	1.48	5.00	3.54 ± 0.71	1-5
	Mother	1.72	5.00	3.68 ± 0.67	1-5
	Peer	1.32	5.00	3.50 ± 0.66	1-5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1.00	5.20	2.82 ± 0.89	1-6
	Existential	1.50	5.70	4.16 ± 0.78	1-6
Ego-identity		1.42	4.88	3.00 ± 0.58	1-5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55)

Variables	Categories	Suicide probability	Attachment			Ego-identity	Spiritual well-being	
			Father	Mother	Peer		Religious	Existential
Suicide probability		1.00						
Attachment	Father	-.45**	1.00					
	Mother	-.48**	.78**	1.00				
	Peer	-.47**	.33**	.36**	1.00			
Ego-identity		-.64**	.35**	.34**	.44**	1.00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16*	.41*	.14*	.21**	.18**	1.00	
	Existential	-.72**	.40**	.37**	.53**	.61**	.21**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는 실존적 영적 안녕, 자아정체감, 모 애착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즉 실존적 영적 안녕( $\beta = -.46, p < .001$ ), 자아정체감( $\beta = -.30, p < .001$ ), 모 애착( $\beta = -.21, p < .001$ ) 순으로 자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자살 위험성 감소의 약 61.5%를 설명하고 있었고( $F = 24.49, p < .001$ ), 이 요인 중 실존적 영적 안녕이 자살 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Wee 센터에서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중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자살예방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살 위험성의 평균 평점은 2.37점으로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Kye (2007)의 연구에서의 2.42점 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Lee (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2.13점 보다 높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5점 척도로 조사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위험성은 종교, 학교 성적, 집단 따돌림 경험, 자살 시도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종교 유무별로는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가 종교 계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긴 하지만 실제로 종교를 가진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았다. 이는 종교를 가진 학생이 가지지 않은 학생보다 자살 사고가 낮았다는 Park과 Koo (2009)의 연구와 Lee 등(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영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Robins & Fiske, 2009)에서 종교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및 자살 완료의 위험 감소와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종교적 활동이 낮은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와 연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종교가 있는 학생의 낮은 자살 위험성 결과에 대해서는 종교 계열 학교에 다니는 종교가 있는 학생의 경우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정규 수업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과 종교 관련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평소의 종교적 신념이 더 강화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가톨릭계인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한 Lee (2003)의 보고나 종교 유무 및 종교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 Kang 등(2004)의 보고와는 일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후 종교 계열 고등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자살 위험성과 종교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의 자살 위험성 정도는 학교 성적이 '상'인 학생이 '중'이나 '하'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자살 의도가 낮고, 학교 성적이 높은 그룹의 자살 의도가 중간 이하인 그룹보다 낮게 나타난 Kang 등의 연구와 성적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사고가 낮았다고 한 Park, H. S. (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성적과 성공적인 진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업이라는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변의 반응이나 자기 스스로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는 결과라 사료된다.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자살 위험성 정도가 낮았다. 또래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집단 따돌림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동반한 스트레스이며, Lee 등의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피해와 자살 사고와의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 예방 캠페인과 같은 활동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살 위험성 정도는 자살 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낮았다. Kim (2005)은 청소년기의 자살 시도자는 높은 우울성향과 높은 정신 신체 증상 호소성향, 높은 욕구 좌절 정도를 보여 주었으며 반면에 건설적인 대응 전략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고, 특히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자살 자체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시도를 통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에 대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할 때 행동화 가능성이 높은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의미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살 위험성 관련 요인들의 파악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적절한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 변수 중 자살 위험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

Table 4.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e Probability

(N = 255)

Variables	B	SE	$\beta$	t	p	Adj R <sup>2</sup>	F	p	Dubin-Watson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33	.04	-.46	-9.13	<.001	.51	265.90	<.001	2.01
Ego-identity	-.28	.05	-.30	-5.96	<.001	.58	42.17	<.001	
Mother attachment	-.17	.04	-.21	-4.95	<.001	.62	24.49	<.001	

Adj R<sup>2</sup> = Adjusted R Square.

치는 보호요인으로서는 영성인 실존적 영적 안녕, 자아정체감, 모 애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의 보호요인이 남자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 감소를 6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실존적 영적 안녕은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평균 평점은 4.16점이며, 자살위험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살위험성 감소에 51.1%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영적 안녕이 고등학생의 자살의도를 감소시키고(Kang et al., 2004), 종교적 영적 안녕 보다는 실존적 영적 안녕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Kye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존적 영적 안녕이 남자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의 감소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한다. 본 연구와 대상자는 다르지만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자살사고를 본 Taliaferro, Rienzo, Pigg, Miller와 Dodd (2009)의 연구에서 실존적 안녕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높은 실존적 영적 안녕이 자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실존적 영적 안녕이 남자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의 감소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점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성개발과 영적인 측면을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함을 입증한다.

남자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보호요인으로 자아정체감은 평균평점 3.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살위험성 감소에 6.8% 설명력을 가진 자아정체감은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의 주요 변수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도 주지만 대부분은 자아정체감이 우울을 증가시켜 자살사고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Park, H. S., 2007)와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 자살 생각과 청소년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Lee (2004)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고등학생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교육 현장에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보호요인으로 모 애착은 평균 3.68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위험성 감소에 3.6%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는 손상된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은 자살위험요소가 된다(Choi et al., 2010)는 보고와 안정적인 애착이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Bostik과 Everall (2007)의 질적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나, 이 이외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살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애착과 자살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었

으므로 남자고등학생의 자살 예방, 문제 행동 및 인성 교육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써 의미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영성인 실존적 영적 안녕, 자아정체감, 모 애착의 증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이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적응방식이나 적응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정신건강 향상과 자살예방을 위해 영성과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건전하게 하는 중재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종교계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고등학교 남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일지역의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자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가 있는 경우, 집단따돌림 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성적이 상이나 중인 경우,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자살위험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자살위험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실존적 영적 안녕, 자아정체감, 모 애착 순으로 6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요인들은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교계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일선에서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Wee센터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을 기반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뚜렷한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연계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http://dx.doi.org/10.1007/BF02202939>
- Bosti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5, 79-96. <http://dx.doi.org/10.1080/03069880601106815>
- Choi, S. J., Bai, D. S., & Chang, M. S. (2010).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

- ent attachment, dysfunctional beliefs,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571-582.
- Colucci, E., & Martin, G. (2008). Religion and spirituality along the suicidal pa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 229-244.
- Eskin, M. (2003).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communication of suicidal intent in Swedish and Turkish adolesc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4, 1-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n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chem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 39, 175-191.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Go, H. J., Kim, D. J., & Lee, H. P. (2000). A validation study of the 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SPS-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680-690.
- Jang, H. S. (2004). *Psychology of adolescence* (3rd ed.). Seoul: Parkyoungsa.
- Joo, E. J. (2007). Parent and peer attachment of American adolescents: Comparison of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 101-112.
- Kang, E. S., Song, Y. S., Jo, W. S., & Kang, S. N. (2004). Relationship of suicide ideation,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190-199.
- Kang, G. S., & Kim, C. R. (2005). *Regression* (2nd ed.). Seoul: Kyowoosa.
-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651-661. <http://dx.doi.org/10.4040/jkan.2009.39.5.651>
- Kim, H. S. (2005). Predictors of suicide attempts in Korean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ren Health Nursing*, 11, 34-42.
- Kim, Y. A., Kwon, Y. S., & Park, K. M.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 112-124.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Annual report of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December 15, 2010,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179505&pageNo=25&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179505&pageNo=25&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Kye, E. K. (2007). *The relationship of suicide probability and spiritu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C. S., Kwe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32-40.
- Lee, E. J., & Lee, E. S. (2002).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9, 56-65.
- Lee, J. S. (2004). *Influences of melancholia and self-identity of youths on the contemplated suicide of you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gi University, Seoul.
- Lee, S. (2003). A study of relationship on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TA ego function of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155-163.
- Ok,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n (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Park, A. C., & Lee, S. K. (1999). A structural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 113-142.
- Park, B. 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16, 505-522.
- Park, H. S. (2007).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for Kore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103-112.
- Park, H. S. (2009). Effects of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851-859. <http://dx.doi.org/10.4040/jkan.2009.39.6.851>
- Park, H. S., & Koo, H. Y. (2009). The buffer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87-94.
- Park, J. A., & Yoo, S. K. (2003). Relationship of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parental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5, 765-778.
- Robins, A., & Fiske, A. (2009).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ness and reduced suicidal behavior: Social support rather than specific belief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 386-395.
- Taliaferro, L. A., Rienzo, B. A., Pigg, R. M., Miller, M. D., & Dodd, V. J. (2009). Spiritual well-be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 83-90.